

故 고점례 한복명장 생전 꿈, 갤러리로 살아나다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 17일까지 책 선정 투표

자녀들이 뜻 이어 작품 공간 ‘고운선 갤러리’ 11일 개관 “한복은 사람과 어우러져 빛나”... 이웃들 모델 패션쇼도

한복을 만들며 평생을 보낸 고(故) 고점례(고운선·1938~2016) 대한민국한복명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바느질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의례한복 전시회에 출품할 ‘관례복’을 짓는 게 마지막 작업이었다. 그에게 생전에 마음 속에 간직한 오랜 꿈이 있었다. 자신의 작품만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과 우리옷 문화관(전수관)을 만드는 것이었다. 아시아 유류정상회의(ASEM), 제1회 광주비엔날레 패션쇼, 베를린한국전통의상발표회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전시와 패션쇼에 참여했지만 온전히 자신의 ‘한복’ 작품만으로 전시회를 연 적은 없어 늘 아쉬웠다.

2016년 세상을 떠난 고 명장의 꿈이 현실화됐다. 고 명장의 이름을 딴 ‘고운선 갤러리’(광주시 서구 풍암순환로 128번길 23)가 오는 1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문을 연다.

고 명장은 5년 전 우리옷 문화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3층 규모 어린이집을 매입했지만 건강이 악화돼 별다른 진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큰 아들 내외 등 6남매는 어머니의 작품 등을 보여줄 공간을 꾸준데 준비해왔고 오픈식을 계기로 본격 운영에 나선다. 1층은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과 공방으로 꾸몄고 2층은 갤러리로 운영된다.

11일 오후 5시 열리는 개관식에서는 평범한 이웃들이 고 명장의 의상을 입고 펼치는 한복패션쇼가 열린다. 고 명장은 “한복은 그냥 걸려 있을 때보다 입었을 때 그 옷과 사람이 어우러져 빛이 나는 것”이라고 늘상 말해왔었다. 큰며느리인 이인리 갤러리 관장은 “어머니 의상은 화려하다기 보다는 은은하고 기품있는 게 특장”이라며 “항상 마주치는 이웃들이 모델이 돼 패션쇼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이웃들이 황룡포, 황원산, 자색단령, 활옷, 구군복, 당의, 도포, 장옷 등 전통의상을 입고 한복패션쇼를 연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한복패션쇼는 매년 두차례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고 명장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던 소프라노 김종례씨가 가곡 ‘고풍의상’을 들려주고 추모영상 상영, 다과회 등이 열린다.



故 고점례 명장

를 배우며 바느질을 시작했다. 1960년 광주 총장으로 제일극장(현 롯데시네마) 인근에 ‘현대한복’이라는 상호로 첫 가게를 열었고 풍암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광주천변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해왔다.

1992년 제3회 우리옷 공모 대제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친 고 명장은 ‘광주빛고을우리옷협회’ 초대 회장, 한복문화학회 광주지회장 등을 역임했고 2003년 대한민국 한복명장에 선정됐다. 한국 전통 복식 재현에 관심이 많아 늘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고 명장은 60이 넘는 나이에도 단국대 부설 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고급과정을 수료하는 등 언제나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제 손에 입을 맞추시고 지긋이 바라보시는데 말씀은 못하시지만 그게 자신이 원했던 공간을 꼭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가족들이 힘을 합쳐 뒤늦게나마 개관식을 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 공간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한편 한복을 비롯해 우리 전통문화와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인리 관장은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문의 062-372-939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1일 열리는 고운선갤러리 개관식 한복 패션쇼에서 모델로 참여하는 이마애씨 가족.



할머니가 지은 궁중대례복을 입고 웨딩포토를 촬영한 손녀 신수진씨.

전남대가 주최하는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광주·전남 특) 한 책 선정을 위한 투표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 올해 7년차를 맞은 독서운동 ‘광주·전남이 읽고 특하다’는 지역 거점대학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교도서관이 주관해 시도민이 한책 선정, 독서클럽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한책 후보에 오른 도서는 모두 5권으로 ‘당신이 옳다’(정혜신), ‘법정스님의 뒷모습’(정찬주), ‘어디서 살 것인가’(유현준), ‘열두 발자국’(정재승), ‘을의 철학’(송수진)이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2019 올해의 한책’은 오는 6월 7일 전남대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한책 선포식을 통해 발표된다. 전남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교수, 언론인, 광주·전남 국립대학교도서관 중견관리자 사서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책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후보도서 5권을 선정했다.

투표 참여 희망자는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남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22개 기관에 방문해 직접 투표할 수 있다.

한책이 선정되면 이후 ‘작가 초청 한책 특 콘서트’, ‘테마도서 전시회’(9월), ‘한책 문학기행’(10월), ‘독서후기 공모전 및 한책 도서 교환전’(11월), ‘한책 독서퀴즈’(12월) 등을 열 계획이며 독서클럽도 5월 말까지 모집해 2020년 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 특 홈페이지(<http://gjtalk.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책 구입비 1인당 월4960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구매하는 데 쓴 돈은 1인당 월평균 5000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가 7일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서적구입비는 496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7년 4942원보다 18원(0.4%)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 지출은 1만2054원으로 2017년(1만2157원)보다 0.8% 줄었다. 또한 월평균 실질 도서 구매비는 지난해 1만1850원으로 2017년 1만1688원보다 1.4% 감소했다.

1인당 월평균 서적구입비 증가와 달리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가 감소한 것은 1인 가구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구당 전체 오락·문화 부문 지출은 월평균 19만2000원으로 2017년보다 9.8% 증가했다. 아울러 오락·문화비 주요 품목 중 국외여행 등 단체여행비(19.1%), 운동 및 오락서비스(13.8%), 유료 콘텐츠 이용료 등 문화서비스(11.8%) 등은 증가했지만 가구당으로만 보면 도서 구매비는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준코의 에티오피아 이야기’ 16일까지 양림동 ‘아트 폴리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광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언덕에 자리한 ‘아트 폴리곤’은 옛 선교사 사택을 개조한 갤러리로 야외 공예미술작품이 어우러져 휴식하기 좋은 공간이다.

아트폴리곤이 에티오피아를 사랑한 일본작가 준코 야마모토를 초청, 오는 16일까지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준코의 에티오피아 이야기(Junko's Ethiopian Storie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에티

오피아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150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준코 작가는 펜 드로잉과 화사한 파스텔 색감이 돋보이는 초기 작품부터 우리나라의 한지와 비슷한 일본 전통 종이 ‘와시’ 위에 붓펜으로 채도를 높인 최근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일본 도쿄에서 나고 자란 준코 작가는 2003년 일본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인의 모임에서 전통 춤을 본 것을 계기로 에티오피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

했다. 벨랑폴리현 현악기 음색과 복잡한 리듬,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가 깨졌다. 2004년에 처음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작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문화를 배우고 예술을 접하며 에티오피아를 알아갔고 그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지난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문의 062-682-097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www.shinyangparkhotel.com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신양파크호텔

☎ 062-228-4711, 2/221-4101,3